



금속노조경주지부당

내가 경주지부 기획 양케이트 당신의 상상이 세상을 바꿀지도? 대통령이라면?

당신의 상상, 세상을 바꿀지도?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대선 시기마다 드는 고민이지만, 모든 것을 혼자 고민하긴 어렵다. 그래서 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바꿔야 할 것들을 떠올렸다. 지금은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조기대선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제도를 함께 이야기해볼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했다.

소소하게 바나나우유 쿠폰을 내걸고 앙케이트를 열었지만, 결과는 참담. 관심이 없어서일까, 내가 뭔가 놓친 걸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작게라도 모인 35개의 제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며,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목소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참여자들의 상상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 안엔 노동의 현실, 기득권 정치, 복지 사각지대, 교육제도의 문제 등이 진지하게 녹아 있었다.

첫 번째, 노동이 먼저다: ‘삶’을 위한 시스템 전환

가장 많은 응답은 ‘노동’에 쏠렸다. ‘주 4일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포괄임금제 폐지’, ‘정규직 전환’ 등은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할 현실의 이야기다.

“잉여노동이 너무 같다”, “비정규직은 인간 존엄을 무너뜨린다”는 응답은 단순히 임금이 아닌, 구조와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했다.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덜 일하면서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구였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회의

: “국회의원도 탄핵 가능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두 번째로 많은 제안이 나왔다. 검찰 해산, 월급 국민투표 등.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기득권은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는 지적처럼, 정치는 국민이 직접 바꿔야 한다는 의식이 읽혔다.



내가 애 월급주려고 세금내나...라는 생각을 하면 투표 밖에 답이 없다 싶지만 애는 인기도 있고 심지어는 대선후보까지 될 정도라니... 국회의원 월급 차등제 필요할지도...

개인에게 떠넘겨져 있는 돌봄에 대해

: 출산시 1억, 출산급여 +50%

복지 영역은 현실적인 절박함이 묻어났다. “출산 시 1억 지급”, “3년간 급여 50% 추가” 같은 제안은 다소 급진적일 수 있지만, 실제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의 고민이 담겨 있었다.

생활동반자법 같은 비혼·비혈연 공동체 인정 요구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보여준다.

교육은 삶에 연결되어야 한다

: 무상교육과 등록금 50% 지원

교육 분야에선 무상교육, 등록금 절반 지원 외에도 “악기, 댄스, 봉사 같은 활동을 교육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공부보다 바쁜 학생들”, “부동산 교육 도입” 등은 수능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교육을 요구했다.

새로운 감각, 새로운 정책: 기술·환경·도시 감수성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 대통령 사면 금지, 자전거 중심 도시 등 기존 정치 담론에서 소외된 이슈들도 제기되었다. 이는 시민들이 전통적 프레임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정책을 상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앙케이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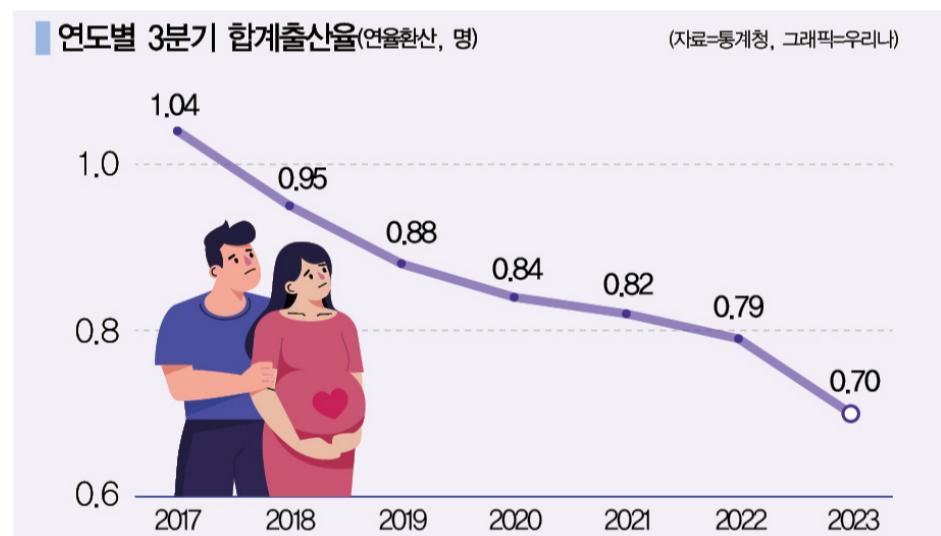
정책 카테고리	주요제안(요약)	핵심가치	공통 근거나 이유	비율
1 노동·복지 개혁	주4일제, 비정규직 철폐,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조 의무설립	삶의 질 향상, 고용 안정, 노동 존중	- 장시간 노동은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친다. - 비정규직과 포괄임금제는 구조적 불평등을 만든다. - 노동조합은 기본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25%
2 정치·행정 개혁	검찰 해산, 비례대표 확대, 국회의원 월급 국민투표, 국회의원 탄핵제 도입, 지방 분권	국민주권 실현, 기득권 해체, 투명성 확보	- 정치 기득권은 국민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 국회의 특권과 권력 남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 검찰 권력도 민주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	20%
3 복지·출산·가족 정책	출산지원금, 출산급여 확대, 생활동반자법, 공공돌봄 확대, 정년 연장	저출산 대응, 가족 다양성, 경제적 안정	- 출산 기피는 경제·돌봄 부담 때문이다. - 다양한 가족 형태도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공동의 책임이다.	20%
4 교육·청년 정책	등록금 지원, 부동산 교육, 공교육 강화, 취미의 날, 청년 일자리 정규직화	교육 평등, 정신건강, 자립 기반 보장	- 등록금 부담은 교육 기회를 가로막는다. -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삶의 균형을 잃고 있다. - 교육은 생존이 아닌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15%
5 공정경제·기술·기후 정책	부자감세 폐지, 이익 분배율 법제화, 건설사 국영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창작자 권리보호(AI 관련)	경제 정의, 안전 사회, 인간 존엄 보장	- 불공정한 분배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 - 투기와 중대재해는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 -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	20%

마무리: 진짜...상상을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도...

이 앙케이트는 단순한 이상이 아닌 삶의 필요에서 비롯된 상상이었다. 노동을 바꾸고, 정치를 견제하며, 돌봄과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이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준다.

비록 35명의 응답뿐이었지만, 다음엔 꼭 100명의 상상을 모아보고 싶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앙케이트, 이렇게 마무리해 본다..

@경주지부 선전부



개인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이상 출산율은 포기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국가는... 본질을 보려 하지 않는게 사실이니까...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2013년 작] 영화처럼 35명의 머리에서 나온 제안들이 이정도라면 상상이 100명, 나보다 뛰어난 학자같은 사람이 엄청 많은 사람의 상상을 모은다면... 진짜 상상이 현실이 되어도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다음에는 진짜 100명 한다. 꼭.

시사만평 - 국민심판 최창근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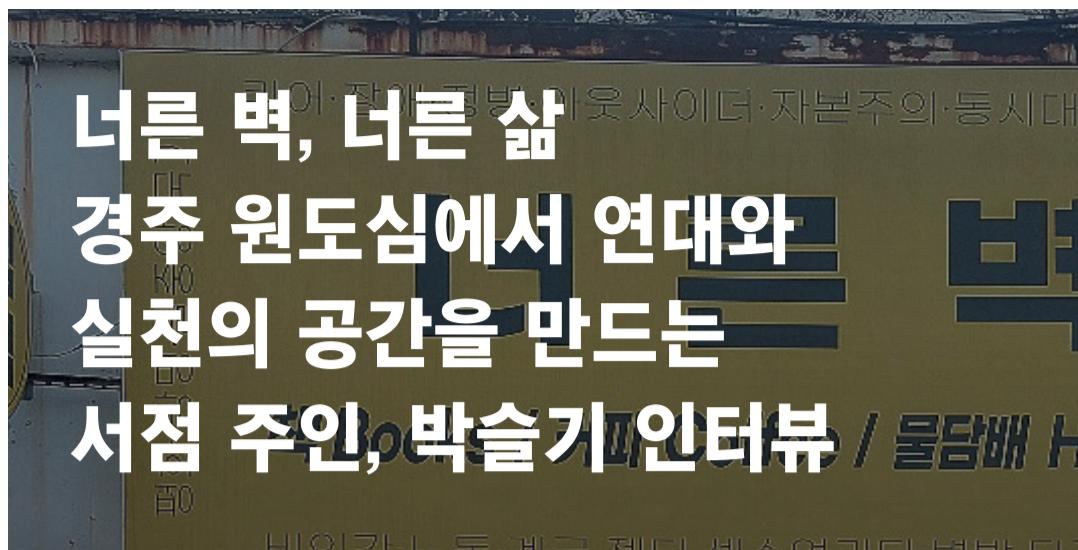


만평(漫評); 사회나 정치의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림.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주의나 체계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 비평'이라는 의미도 있다.

"일정한 주의나 체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딱 지금 메탈블러드 소식지에 어울리는 코너가 아닌가 싶어 현담지회 선전부장님께 요청드렸다.

컨셉은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의 필살기인 '고무 고무 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위해 자신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쳐부수는 주인공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일제 해방 이후 나라를 좀먹어오던 잔존세력, 귀족이자 왕당파 세력, 극우세력들을 쳐부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부디 세상이 만화같이 시원시원해지길 바라며 그림을 쾌척해주신 현담지회 최창근 선전부장님에게 압도적 감사를...





노란 간판에 적힌 낯선 문장들 사이, 유독 눈에 띈 한 줄.
“더 많은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너른 벽을 추구해야 합니다.”

좁은 골목 끝 작은 책방 ‘너른 벽’은 말 그대로 경계가 낮은 공간이다. 빨간 대문 옆 창문 너머로 책등이 보이고, 안으로 들어서면 5평 남짓 공간에 보헤미안 감성과 진지함이 공존한다. 사회를 탐구하는 책, 무심한 듯 배치된 포스터, 고요하지만 단단한 분위기.

서점의 주인 ‘슬기’는 세 마리 고양이의 집사이자, 낯선 이에게도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이다. “경주 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며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경주에 뒷을 내리다

서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이후 퇴사한 그는 우연히 ‘청년 마을살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주를 찾았고, 단기 체류에서 정착으로 마음을 바꾸게 됐다.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며 가능성을 보았고, 퇴직금과 창업 지원금으로 서점을 열었다. 인테리어 없이 책과 이야기로 채운 공간.

“내가 좋아하는 책들로 채우고, 그 안에서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너른 벽’은 단지 서점이 아니다. 누군가에겐 피난처, 누군가에겐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다. 책장은 젠더, 권력, 불평등, 이주, 성문화, 성매매 집결지 등 구조적 문제를 탐구하는 책들로 가득하다.

불안정하지만 자유롭게, 연결을 꿈꾸며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 관심이 생겼고, 지금은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슬기는 자갈마당 포럼, 성매매 세미나, 여성장애인 정책 간담회, 아웃리치 활동 등에도 참여하며 실천을 이어간다. 돈벌이는 쉽지 않지만 북토크, 공동 기획, 독서 모임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고 있다.

“계획은 많지 않아요. 그냥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그는 스펙보다 일상을, 안정보다는 삶의 의미를 택해왔다. 이 철학은 결국 평등을 위한 ‘페미니즘’으로 귀결된다.

“페미니즘은 제 삶의 핵심 가치예요. 경계를 넘고 실천하는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 생각해요.”



연대하는 서점, 너른 벽

자신을 “연대하는 페미니즘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하는 슬기. 금속노조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다.

“처음엔 좀 무서웠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 생각해요. 특히 사회공헌기금 같은 활동이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게이트에 매달린 말들』을 꺼낸다.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투쟁기를 담은 이 책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준다며 꼭 읽어보길 권했다.

@경주지부 선전부

읽어봅시다! 너른벽 추천도서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

- 사주명리학과 안티 오이디푸스
(고미숙 지음, 북드라망)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면 제도권 바깥에 있는 무속적인 행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그랬다. 이 책은 그러한 통념에 반박한다. 저자는 명리학을 ‘자연과학적 철학’으로 바라본다.

명리학은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도구가 아니다. 나와 내 몸, 타자, 사회, 나아가 우주와의 관계를 하나의 선상에서 연동시키는 철학적 체계인 것이다. (흥미롭지 않나요?) 따라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곧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 멋진 철학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는 게 어떨까?

“이 생극의 파노라마에는 어떤 위계도 결핍도 없다. 저 나무가 저 돌보다 더 우월할 것도, 더 열등할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저 돌과 나 사이의 서열을 규정할 기준 같은 건 없다. 저 나무가 있으매 돌이 있고, 돌이 있으매 내가 있는 것이다. 서로는 서로에게 배경이 된다.(161쪽)”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서점에 들려주시길!

당당히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자!



금속노조경주지부 신시연
발레오만도지회 지회장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은 멀고 험해 보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정치는 자본의 위기만을 걱정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해왔다.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자본의 손실을 메우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였다. 결국 자본의 탐욕을 비호하는 정치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다가올 대선은 이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기호 5번 권영국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에게 던지는 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씨앗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투표하고, 주체적인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노동자임에도 스스로의 처지를 잊고 보수정치를 택한다면,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다. “그래도 그나마 낫다”며 차악을 고르는 관성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기호 5번 권영국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당당한 정치 선택이다.**

지금 언론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노동자를 외면하는 후보들을 ‘진보’로 포장하고 있다. 이것은 무지하거나, 위선적이거나, 둘 중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 진짜 진보후보는 권영국 후보 단 한 명뿐이다. 노동자가 자기 처지와 위치를 모르고 보수정치를 지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는 일일 뿐이다.

“그래도 내란세력보다는 낫지 않냐”는 말은 노골적인 착취보다 우선적인 착취가 낫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착취와 억압도 거부해야 한다. 수구보수든, 중도보수든 노동자를 착취하는 본질은 같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노동자는 설 자리가 있는가?

이재명도, 김문수도, 윤석열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을 위한 자유이지, 노동자를 위한 자유가 아니다. 그 안에 노동자의 자리는 있는가? 이제는 세상을 정확히 보자.

1993년 문민정부를 자처한 김영삼 정권은 4개월 만에 아풀로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했고, 96년 12월,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후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들불처럼 번졌지만, 야당 대표 김대중은 정리해고를 다시 합의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은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 폭력경찰과 포크레인을 투입했고, IMF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확산법,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 금지법 등을 도입하며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정부로 기록됐다. 노동자의 분신 투쟁에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며 열사들을 비하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으로 노동조합을 제도

적으로 해체했고, 직장폐쇄와 물리적 충돌로 수많은 노조를 무너뜨렸다. 박근혜 정권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을 강행하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고,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반복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와 무기계약직으로 대체됐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사무실을 침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느 정권도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
이 역사를 잊는다면, 우리는 같은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시대의 요청이다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왔다. 2008년 분열 이후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까지 여러 정당을 지지해 왔지만, 선거 때마다 각 당이 후보를 내며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은 매번 갈등과 분열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다르다.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사회대전환회의’의 지지를 받고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했다.

이번 대선은 갈라진 노동자 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다. 더 이상 혼들리지 말고,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정치의 주인이 되는 길을 열어가자.

**보수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치로 바꾸자.

당당히,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자! 투쟁!

@발레오만도지회 신시연 지회장

